

# “내년 항공기 현대화 1.5조 투입… 노후 항공기 순차적 퇴역”

## 대한항공, 안전관리 새신 ‘박차’

우기홍 사장, 비상대책회의 참석  
잇따른 사고 사과하고 대책 발표  
엔진결함 A330 항공기 특별 점검  
외부 전문기관 점검도 적극 추진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에어버스330(A330) 항공기(기종)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보유 중인 A330 항공기 30대 중 6대를 퇴역시키고 나머지 항공기는 5대씩 나눠 차례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김포공항에서 열린 ‘항공안전 비상대책 점검회의’에서 “최근 세부공항 활주로 오버런(이탈)을 비롯해 A330 항공기가 두 차례 엔진 문제로 회항한 건이 발생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 A330 항공기는 지난 달 23일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현지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했다. 대한항공의 A330 항공기는 지난 7월에는 엔진에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항공안전감독관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에 참석해 안전관리 새 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결함이 발생해 아제르바이잔에 긴급 착륙했다. 대한항공의 A330 항공기는 지난 달 30일에도 시드니로 향하던 A330 항공기 역시 엔진 결함을 이유로 인천으로 회항했다.

대한항공은 A330 항공기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A330 항공기는 총 30대다. 대한항공은 이 중 6대를 퇴역시키고 나머지 항공기들은 5대씩 나눠 순차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23일부터 해외지역 20개 공항에 대해 지상조업 등 안전부문과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B787-9 10대 ▲B787-10 20대 ▲B737-8 30대 ▲A321neo 30대 등 2028년까

지 총 90대의 신형기를 도입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은 신형기 도입과 함께 B777-200ER 6대, A330 6대 등의 경년기는 차례로 퇴역시킬 계획이다.

우 사장은 “대한항공은 올해 항공기, 엔진, 시뮬레이터 도입을 위해 약 5400여억을 투자했다”며 “내년에도 기재 현대화를 위해 항공기 1조4000억원, 엔진 640억원 등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부문에서도 스페어(Spare) 엔진 확보와

사업량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비부품 도입을 위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영종도에 1만 5000평 규모의 신규 엔진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해당 엔진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능력의 약 2배 반에 이르는 연간 300대의 엔진을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운항, 정비, 객실, 운송 등 안전과 직결된 인력의 확보와 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의 현재 여객 국제선 사업량이 2019년 대비 약 58% 정도 회복됐고 운항·정비·운송 등의 인력은 전원 현업에 복귀했다.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의 경우에도 약 70%가 업무에 복귀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올해 운항승무원 100명을 채용하고 객실승무원도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에도 운항승무원 120명을 비롯하여 정비·객실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채용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허위로 탄 정부보조금 3년간 1144억… 환수는 ‘미진’

## 기재부, 환수실적 점검 회의 환수금액 629억, 절반 그쳐 캠코가 부정수급 환수 맡기로

최근 3년 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총 114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돌려받은 것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2019~2021년 부처별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년 간 총 25만3000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급 적발실적의 97.8%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나왔다.

돌려받은 부정수급액은 지난 3월 기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이혼한 배우자를 세대분리하고 소득을 축소해 보조금을 받거나, 허위로 시공한 사진을 올리고 시공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부정수급 환수 업무는 캠코가 맡게 된다. 캠코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담당해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 시효는 5년이다.

보조금 입력 주기도 현재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초 1년 단위 입력에서 상·하반기 2회로

단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추진하고 징수 절차를 개선해 환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환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적발 후에 환수까지 독촉 고지나 추심,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환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헬스케어·디지털 패션 등 제조서비스 8대 업종 선정

산업부, 연내 ‘제조서비스 전략’ 수립

정부가 헬스케어와 로봇서비스 등 제조서비스 8대 업종을 선정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조서비스 산업전략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제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제조서비스란 제조기업의 생산과정 혁신을 지원하거나, 제품에 서비스를 부가 또는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우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조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업계 준비 동향과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제조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7%로 OECD국가중 24위로 떨어진다. 원자재와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다.

경쟁국은 디지털 기술을 흡수해 제조업 고도화에 나서고 있고, 선도기업들은 단순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를 결합한 신사업을 통해 고객가치와 수익 극대화해 나선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 신시장은 2027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제조엔지니어링, 모바일티서비스, 헬스케어, 로봇서비스, 예지보전, 원격관제, 디지털 패션 등을 제조서비스 8대 주요분야로 선정, 이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세종=원승수 기자 hys@

# 현대중그룹, 사장단 인사… 계열사간 시너지 올린다

## 김형관·신현대 등 사장 승진

현대중공업그룹이 2일 올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이 현대미포조선으로 이동하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로는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사장이 내정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

장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현대제뉴인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건설기계 기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총괄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조영철 현대제뉴인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건설기계부문 중간간주사의 시너지를 내고 기술력을 강화를 이끌게 된다.

현대건설기계 최철곤 대표이사 부

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최철곤 사장은 불보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건설기계 생산혁신 및 스마트 공장로의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건설기계 부문의 사장단 인사는 지난해 인수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양사의 기술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김형관 사장

신현대 사장



이동욱 사장

최철곤 사장